

<2023년 6월 28일 수요일말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행하여라**

할렐루야!

◎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셨습니다.

주일말씀에 이어, 오늘 수요일 제단에도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일에는 말씀과 더불어 47개의 잠언을 전했는데,
오늘은 잠언으로만 전체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 생각 집중, 마음 집중해서 깊이 깨달으며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잠 언>

1. ‘생각’을 좋게 하면 좋게 되고, 나쁘게 하면 나쁘게 된다.

2. ‘긍정적인 생각’ 이다.
3.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4.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사람의 생각은 땅같이 낮다.
5. 죄를 짓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 살려 오기를 원하신다.
6.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 으로 해결해 주신다.
7. 하나님의 생각은 ‘죄’ 를 크게 보지 않고 ‘사랑’ 을 크게 보신다.
8. 생각을 잘못하면 죽는다.
9.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인식하지 말아라.
10. 자기 의지요 자기 생각인데, 선생 생각도 이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11. 죄를 지으면 자기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을 한다. 자기 생각이 100% 온전한지 확인하여라. 하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자가 오히려 해를 준다.

12. 사람이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잘 보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보고 싶은 것을 기어이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보기 전에 제 생각대로 못 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과 성령께 생각을 구원해 달라고 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의 육이 되어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항상 행하여라.
13. 온전한 생각이 아니면 자신이 분별하고 끊어라.
14. 생각이 병들면, 행실도 몸도 병든다.
15.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배운 것을 썼다. 또 내가 겪은 것도 썼다.
16. 잠언을 쓰고 성령께 말하니,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다. 14번까지 쓰고 내 생각을 지금까지 썼다고 하니, 잠언 쓴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나 성령께 배운 것을 썼네.” 하셨다. 이와 같이 자기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은 다르고, 선생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17.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역시 미운 자는 그렇게도 밋고, 예쁜 자는 그렇게도 예쁘다. 미(美)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짓’이다. 하는 짓이 미우면, 미와 상관없이 미운 것이다.
18. 예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밋게 생겼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섭리사 45년간을 보아라. 예쁜 자라도 구원 못 받고 영원한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인물이 밋게 생겼어도

구원 길에 영영히 존재하기도 한다. 육도 예쁘고 행실도 예쁘게 하자.

19. 하는 짓 따라 좋게, 혹은 나쁘게도 보아라.

20. 온전하게 행실을 고치기다. 회개하기다.

21.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 하나님이 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온 인류가 매시간, 매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한다.

22. 하나님도 생각으로 살아가시느냐고 물었더니, “그러하다.” 하시며, “내가 내 마음을 전해 주지, 다른 자의 마음을 전해 주겠느냐.” 하셨다.

23. 이로써 보건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온전한 생각과 마음, 구상,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달아야 한다.

24. 어떤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대에 쓰시는 자신의 육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서 영원한 나라로 구원시켜 살려 놓았는데, 사탄과 악한 자와 멸망받고 사는 자들의 말을 듣고 꾀를 받아 그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자기를 구원한 자를 불신하였기에 그 상실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그중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나 뜻이 있는 자는 다시 오게 사명자가 하나님께 간구해 주기도 한다.

25.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잘하면 생각 잘한 것으로 살아나지만, 제 생각으로 생각하면 죽게 된다. 죽은 자는 아깝지 않은 것이다.
26. 미운 짓 하면, 보기 싫어 못 본다.
27.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선생이 처음에 내 생각대로 그 나름대로 잘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계단으로 하여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베니어판을 짜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렇게 하면 보기 싫어서 어떻게 보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하시며 현재 완성한 것을 영계로 보이시고, “돌로 아름답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쌓아라.” 하셨다.
28. 그때 하나님은 “네 생각같이 만들면, 보기 싫어 어떻게 보느냐.” 하셨다.
29.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살면, 보기 싫어 어떻게 보느냐고 하시며 안 보시고, 그렇게 못 살게 트신다. 어느 때는 심판도 하신다.
30. 천국은 보기 싫은 것이 없는 세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 싫은 자는 못 간다.
31. 하나님께 말하기를, 월명동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과 내 생각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수백조 배 차이가 있었다고 하니, 하나님은 “아예 그 차이를 말로 할 수 없고, 아예

말도 말아라.” 하시며, “나 전능자가 구상하고 만든 것을 천 년 동안 혼인 잔치 하며 귀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나와 같이 쓰자.” 하셨다.

32. 사람들의 생각이 땅에 붙어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보아도 보통으로 본다.

33. 사람의 생각은, ‘무능하다. 무지하다.’ 이런 말로도 통하지도 않는 생각들과 행실을 하고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쓰면서도 가치를 모른다.

34.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빌딩을 건축하여 놓았어도, 하나님이 별장을 지어 놓은 것과는 그 가치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35.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로 ‘월명동 하나님 궁’을 귀하게 보고 써라. 하나님이 행하신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사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안 보신다.

월명동 하나하나의 돌들과, 환경들과, 일곱 산을 보아라. 그리고, 뻗어 내린 산맥들을 보아라. 세계와 민족의 어디에서 어떻게 뻗어 왔나 보아라.

고구마, 감자 등 각종 뿌리 열매는 뿌리가 뻗어 가서 끝에서 열매가 열린다. 과일나무도 가지가 뻗어 가서 그 끝에서 열매가 연결되고 열린다. 그러하듯 세계의 산맥 두 개가 우리 민족의 두

큰 산맥으로 뻗어 내리고, 거기서 두 산맥이 월명동으로 뻗어 와, 그 끝자락에 월명동이 형성됐다.

지구의 큰 두 산맥과 우리 민족의 큰 산맥 두 개가 뻗어 와서,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자연 궁전, 월명동을 형성한 것이다.

그 모양과 형상을 자세히 보아라. 자세히 만든 것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평생 신비한 것을 못 본다.

월명동에 돌 쌓은 것만 신비하냐. 산맥들과 모든 모양, 생김새, 형상이 모두 신비하다.

(자료 / 그림 참조)

36.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듣는 것에 따라, 느끼는 것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을 했어도 분별하고 버릴 것은 즉시 버리고, 행할 것은 즉시 실행하여라.
3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기를 구원한 자를 항상 생각하여라. 그리하면 자기 생각대로 못 하게 된다.
38. 사탄과 귀신, 악인들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자기 욕으로 삼아 쓰려고 한다.